AUTHOR 한철하 (Chul Ha Han)

TITLE 칼빈신학과 신학공관
(A Proposal to KETS for a "Theological Synopsis)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17 no.1 (May, 1999):271-294

Tidwell, A. Charles(1982). Educational Ministry of a Church. Broadman Press, Nashville, Tennessee.

류태영(1996). 천재는 없다. 성현출판사.

신복윤(1997). 신학정론 Vol. 15, No. 1. 신학정론사.

신종곤(1995). "기독교인의 소명과 직업에 관한 고찰",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석사논문.

유종성(1998). 빛과 소금. 두란노. 통권 제 157, 4월호.

'99 제 1 회 칼빈강좌

칼빈신학과 신학공관

한 철 하

<前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Ⅰ. 神學共觀의 內容과 神學共觀 提案의 必要性

ACTS에서는 1994年부터 소위 "基督敎 中心眞理에 대한 神學共觀"(Theological Synopsis)을 제안하여 오고 있습니다. 1996年 가을과 1997年 봄에 韓國福音主義神學會에 "神學共觀" 제안을 하여 本校 朴炯庸 박사께서 동 제안에 대한 外部로부터의 첫 응답을 하여주시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本 神學校에서 김재성 교수께서 초청하셔 주시어 동 "神學共觀"과 "칼빈신학"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解明하도록 요청을 받게 되어 저는 合同神學院이 ACTS와 함께 "基督敎 中心眞理에 대한 神學共觀"을 全世界 神學界를 向하여 提案하는 일에 步

調를 함께 하는 두 神學校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神學共觀"을 提案하게 된 배후에는 전적으로 칼빈을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즉 칼빈神學을 공부하다 보니 "神學共觀"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歷史的 背景 또는 論理的 背景은 뒤에 밝히기로 하고 먼저 "基督敎 中心眞理에 대한 神學共觀" 提案의 內容과 意味를 먼저 說明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分明히 해야할 일은 "基督敎의 中心眞理"가 무엇인데 그것을 中心으로 모든 神學들이 共觀해야 하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宗敎改革의 中心인 "以信得義"(justification by faith alone)에서 出發点을 삼습니다. 이 敎理는 사실상 宗敎改革의 三大原理, sola Scriptura, sola fide, universale sacerdotium 의 中心에 속합니다. 여기서 sola Scriptura는 "形式的 原理"로서 聖經의 權威를 세워야 聖經의 中心眞理로서 sola fide도 成立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ola Scriptura를 Causa formalis라고 했고 sola fide는 causa materialis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universale sacerdotium은 "恩寵의 手段"(means of grace)으로서 sola fide의 은혜를 베푸는 手段 즉 敎會의 使役에 관계되는 것이고 敎會의 말씀 使役의 目的이 "믿고" 구원얻게 하려는 것임으로 역시 中心은 sola fide 그리고 그 內容은 sola grati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宗敎改革은 실지로 이 한가지 眞理를 세우는 일을 主로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以信得義"의 眞理는 사실은 바울이 유대主義에 반대해서 "우리가 義롭다 함을 받는 것은 律法의 行爲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롬 3:28)고 함으로서 먼저 基督敎宗敎의 中心眞理로서 제창하였고 이 中心眞理를 어거스틴도 텔라기우스에 반대해서 恩寵의 宗敎로서 基督敎宗敎를 確立함으로서 이 中心眞理를 견지하였고, 이같은 眞理는 Calvin, Wesley에 있어서 基督敎의 中心眞理로서 確定되어 오고 있습니다.

基督敎會는 使徒時代로부터 오늘까지 使徒信經, 니케아信經, 그리고 각 敎會의 信條들로서 敎理體系들을 提示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곳에서 世界敎會는 그 根本敎理에 있어서 本質的 一致를 보이고 있음을 證明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使徒的 神學傳統"을 中心으로 使徒時代, 古代敎會, 中世敎會, 現代敎會의 一致를 主張하는 일을 우리가 다 尊敬하는 朴炯龍 博士에게서 發見하고 놀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섭섭하게도 美國長老敎會(Presbyterian Church, U.S.A.)만은 이 朴炯龍 博士께서 제안하는 ecumenical 敎會의 一致에서 除外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그 敎會는 1967年 總會에서 "敎會의 告白的 立場"을 變更함으로서 "무슨 信條도 믿지 않기로 決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敎會가 朴炯龍 博士께서 믿고 있는 "使徒的 神學傳統을 잇는 에큐메니칼 敎會" 전통을 이탈한 敎會로서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信條의 中心眞理는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義롭다 하심을 얻는" 이 眞理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말할 때 敎會의 敎理體系의 各 條項이 以信得義 條項보다 덜 重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三位一體 條項은 基督敎의 가장 重要條項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意味에서 "以信得義"의 敎理와 "三位一體"의 敎理는 一身同體의 敎理요, 같은 眞理의 다른 面들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獨生子께서 하늘 榮光에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려 보내시어서 十字架上에 내어 주시어서 代贖의 일을 이루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분들에 관한 敎理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그의 代贖의 恩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義롭다 하심을 받기"위함입니다. 즉 "三位一體"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以信得義"의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후자를 베어 버리면 前者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 믿고 救援 얻는 眞理"를 우리가 中心에 붙잡는 일은 하나님의 우리를 向하신 뜻 그 자체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오로지 하나님"께 榮光을 돌리기 위함(soli Deo gloria)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恩惠의 榮光을 찬송케하기 위함입니다(εἰς ἔπαινον τῆς δοξῆς τῆς Χάριτος αὐτοῦ).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中心"에서 一步라도 이탈하는 순간 모든 것이 無로 돌아가고 거짓되고 不義하게 됩니다(롬 3:4). 이것이 前提되고 난 후에 그 前提가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 전체가 우리를 救援하시는 그 "救援"의 眞理에 中心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新約聖經과 舊約聖經이 이 "以信得義"의 救援眞理를 中心에 두고 있다는 事實을 論하지 않겠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恩惠"로 구원 얻게 되었고, 모세의 법궤의 구조가 또 모세의 제사제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代贖救贖으로 우리가 救援얻는 眞理를 말하고 있음이 分明합니다. 福音書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역시 이 한 点에 集中됨을 더 말할 必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使徒가 역시 이 한 가지 点에 集中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聖經"이 全體로서 "믿음으로 救援 얻는 일"이 目的임을 分明히 하는 두 구절을 지적함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딤후 3:15은 聖經이 무엇하는 冊인지를 가장 分明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聖經은 能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救援에 이르는 智慧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代贖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그 핵심이고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救援을 낳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딤후 3:15은 聖經이 이 일을 하는 冊임을 明示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 그 內容을 分明히 하여주고 있습니다. 즉 聖經은 우리에게 罪赦함을 주시는 엄청난 福音을 우리에게 주는 동시에 罪人을 變하여 義人이 되어 "善한 일"까지 하게 만드는 엄청난 冊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聖經冊을 주신 하나님께 永遠히 感謝讚頌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31은 聖經이 "예수 믿고 救援 얻기 위한 冊"임을 分明히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福音을 記錄하는 目的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目的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生命을 얻게 하려함이니라"고 分明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救援 얻는 眞理"가 聖經의 中心眞理임을 聖經 자체가 分明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世界神學界를 向하여 이 中心眞理를 좀 認定하라고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舊約, 新約, 敎會史, 宣敎現場, 심지어는 오늘의 人類가 살고 있는 文化現場에서 이 中心

眞理를 確認하는 일이 中心課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세기 동안 舊約學, 新約學, 敎會史學, 宣敎學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神學의 使命이 信仰을 세우는 "말씀"을 硏究하는 學問이 되야 하겠는데 神學이 主로 하여 온 일은 信仰을 破壞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基督敎宗敎가 무엇하는 宗敎인지 제대로 말하는 神學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世界神學界가 이와 같이 白滅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 神學을 배우고 미혹되어온 西洋敎會가 전멸직전에 있게 된 慘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게하는 일"이 最急先務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하여 우리는 "基督敎의 中心眞理에 대한 共觀"을 온 世界神學界에 强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II. 神學共觀의 칼빈神學的 基礎

神學共觀의 일은 위에서 본대로 그 內容이 너무나 單純하고 너무나 當然한 것입니다. 그러나 墮落된 오늘의 神學界 속에서 그 眞理를 發見하게 된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이 아니었다면 이 지극히 單純하고 當然한 일을 永久히 놓치고 말았을 지도 모릅니다.

1. 基督敎宗敎에 있어서의 中心点 문제

神學共觀 제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基督敎宗敎에 있어서 中心点을 어디에다 잡느냐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基督敎宗敎가 무엇인가?할 때 自由主義神學들은 제멋대로 自己 主觀으로 가장 中心이 된다고 파악한 것 하나씩을 내놓고 그것이 참 基督敎宗敎이고 聖經은 바로 그런 眞理를 가르친다고 主張합니다. 칸트의 "良心", 슐라이엘막하의 "절대의존의 감정", 틸리히의 "존재", 발트의 "말씀"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神學的 基督敎가 제창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참 基督敎宗敎에서 이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保守主義神學 쪽에서는 基督敎의 傳統的 主要 信仰 條項들을 文字的으로 믿고 그 信仰을 保守하는 것이 참된 歷史的 基督敎(historic Christianity)라고 主張하여 오고 있습니다. 저도 모름지기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참 基督敎宗敎는 최소한 使徒信經의 각 信仰條項을 다 그대로 믿는 것이요, 現代知性과는 배치되나 根本主義 五個 條項은 특별히 保守해야하고, 또 사실 歷史的 信仰告白書들은 다 그 內容이 一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信條의 각 條項을 그대로 文字的으로 固守해야 한다는 保守主義 입장에서는 基督敎宗敎의 中心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상 별로 문제삼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信仰論(강요 III, 2)에서 우리는 基督敎宗敎의 中心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信仰을 다음과 같이 定義합니다.

>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할 수 있겠다.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
> Divinae erga nos benevolentiae firmam certanque cognitio, quae gratuitae in Christo promissionis veritate fundata, per Spiritum Sanctum et revelatur mentibus nostris et cordibus obsignatur.
> A firm and certain knowledge of God's benevolence toward us, founded upon the truth of the freely given promise in Christ, both revealed to our minds and sealed upo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Inst.* III, 2:7)

여기서 칼빈은 信仰이란 하나님의 우리를 向하신 善하신 뜻을 確信하는 知識이라고 定義하고 있습니다. 즉 基督敎信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信仰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종당에는 "救援하여 주시어 永生을 누리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信仰(Ⅲ, 2:28)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向하여 善한 뜻을 가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信仰이 우리의 信仰의 中心을 이룬다면 자연히 基督敎의 여러 信條들을 하나 하나 文字的으로 믿는 일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즉 "信仰"(faith)과 "信仰의 各 條項"(articles of faith)과의 관계는 어떤 한계에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有機的으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信仰의 각 조항 하나 하나가 저 "중심신앙"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條項도 무너지면 이 信仰의 中心도 무너지므로 어느 한 條項도 동한시되지 않도록 保守해야 합니다. 예컨대 근본주의 五個條 "성경무오" "동정녀 탄생" "몸의 부활" "대속구속" "이적의 역사성" 등이 그대로 保守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구원의 善하신 의지"에 대한 우리의 信仰이 견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信仰條項들만 견지되었다고 우리의 信仰이 견지된 것이 못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眞理가 확실하게 되는 또 그 恩惠의 구원의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 聖靈의 인치심의 뜨겁게 경험되야 그것이 사실로 "산 信仰"(living faith)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救援에 대한 뜨거운 經驗없이 敎理條項만 다 認定한다고 해서 基督敎信仰이 成立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聖靈의 印치심을 信仰의 核心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우리를 養子 삼으시는 聖靈의 인치심을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하는 인치심입니다.

"聖靈이 親히 우리 靈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子女인 것을 證據하는" 인치심입니다(롬 8:16). 그리하여 이 인치심은 우리가 장차 천국유업에 들어가게 될 保證으로 우리 마음 속에 인치심이 된 것입니다(강요 Ⅲ, 2:36, 39; 엡 1:13~14; 고후 1:21~22; 5:5). 칼빈에 있어서 聖靈의 이름들 가운데 제일 첫째로 "養子삼으시는 靈"(the Spirit of adoption)을 꼽습니다. 그리하여 이 聖靈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을 뜨겁게 인쳐주십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불"이라고도 부릅니다(Ⅲ, 1:1).

Maravian-Wesleyan의 救援經驗의 核心이 바로 Calvin의 이와 같은 가르침에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선교를 위하여 항해하는 배에서 만나 모라비안 지도자 Spangenbeg가 Wesley에게 물은 첫 질문이 바로 롬 8:16을 경험하였나의 질문이었습니다.

> Does the Spirit of God bear witness with your spirit that you are a child God?(Wesley's works, Vol. 1, 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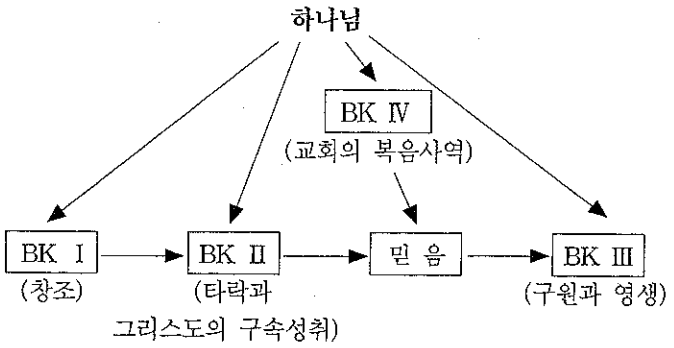
이 동일한 구절을 웨슬레이는 그의 平生 핵심신앙으로 삼고 있습니다. Wesley에 있어서 이 구절은 Almost Christian이냐 Altogether Christian이냐를 판가름하는 표가 되었습니다(Wesley's works, Vol. 5, p. 24). 우리는 여기서 Calvin과 Wesley의 本質的 一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向하시어 審判치 아니하시고 救援하시겠다는 사랑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言約의 眞理性에 기초를 두고 있음은 더 말할 必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向한 우리의 信仰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 그를 보내시어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시었음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確證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컨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信仰의 中心"을 두는 칼빈의 입장을 우리는 分明히 하였습니다.

2.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基督敎의 中心眞理

위에서 우리는 基督敎 宗敎를 우리가 믿는데 있어서 그 中心点이 있다는 것을 Calvin 神學을 이용하여 分明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內容이 무엇인지는 分明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기뻐하시는 뜻"에 信仰의 中心을 두자는데 이르렀으나 그 뜻(benevolentia)의 內容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기독교 강요 전체를 보아야 分明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 방대한 冊의 內容이 아주 단순한 眞理 內容을 分明히 나타나도록 조직하였기 때문에 저 信仰의 中心点의 內容이 무엇인지 아는 일은 극히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각 권의 제목만 보아도 즉시로 분명히 됩니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도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崔權能 목사님의 평생 전파하여 마지아니한 "예수 믿고 천당"이란 한마디입니다.

이 내용을 칼빈은 그의 『강요』제 4권 첫머리에서 잘 설명하여 줍니다.

> 전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 오신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게 된다.
> As explained in the precious book, it is by the faith in the gospel that Christ because ours and we are made partakes of the salvation and eternal blessedness brought by him.(*Inst.* Ⅳ, 1:1)

여기서 칼빈은 『강요』 제 3권을 한마디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福音信仰"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것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과 永生福樂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sola fide(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여기에 分明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요』 제 3권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아도 저 中心点의 내용이 즉시 분명하게 됩니다. 칼빈은 『강요』제 3권에서 세 가지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의 恩惠를 받는 方法

(2) 그리스도의 恩惠를 받음으로 얻는 有益(benefito, fructus 또는 bona)

(3) 그리스도의 恩惠를 받을 때에 우리 몸에 미치는 結果(effects, effectus)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恩惠를 받는 方法은 福音 說敎를 듣고 聖靈의 감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sola fide)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恩惠를 받음으로 얻는 有益은 현세에서도 여러 가지 有益을 누리게 되나 主로 大國가게 되는 일이 가장 큰 有益이고, 그리스도의 恩惠를 받는 結果 우리에게 미쳐 오는 것은 "救援"입니다.

칼빈은 이 세째 주제인 "救援論"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福音의 二大 內容 "悔改"와 "罪赦함"(눅 24:47; 행 5:31)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하여 줍니다. 그리고 제3권 마지막 장에서 "復活"을 다룸으로써 地獄과 大國의 종말을 분명히 하여줍니다. 문제는 우리의 罪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한 絶望的인 悲慘한 상태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첫째로, 그 重한 罪를 赦하여 주시는 일이고, 罪赦함을 받은 우리로서는 그대로 罪가운데 살아서는 아니되고 이제까지 지은 죄도 悔改하고 重生하여 새사람이 되어 天國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 성별된 생활, 즉 사람들에게 善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自力으로는 불가능하며 "예수 믿음으로" 두 가지 일, 즉 "죄사함"과 "착한 생활을 하는 일"이 동시에 완전히 해결되게 되어있습니다. 칼빈은 그의「救援論」전개의 벽두에(III, 3:1) 그 전구조를 한 문장 속에 分明히 하여 줍니다. 즉 福音이 "悔改"와 "罪赦함" 二大 要素로 구성되나 그 關係는 對等한 관계라기 보다 하나가 原因이 되고 하나가 結果가 되는 관계입니다. 즉 福音은 어디까지나 "罪赦함의 福音"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大國 열쇠는 "죄"에서 "풀고" "매는" 열쇠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聖靈을 부어 주시고 宣敎派送 하실 때에 "罪赦함의 權勢"를 주십니다. "너희가 뉘 罪든지 赦하면 赦하여질 것이요 뉘 罪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요 20:23). 그러나 이 "罪赦함의 福音"이 "悔改"를 필수적으로 동반하지 않는다면 天國은 罪人으로 들끓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子女들에게 罪赦함의 恩惠를 줌과 동시에 "悔改"와 "重生"과 "聖化"의 은혜도 동시에 完全히 그리스도안에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었습니다. 칼빈은 이 点을 그의「救援論」전개의 벽두에(III, 3:1) 分明히 하고 이 기본 틀 안에서 제3권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 복음을 전하여 죄가 용서됨을 알리는 목적은 죄인들이 사탄의 압박과 죄의 멍에와 악의 비참한 질고에서 풀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오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하는데 전력을 다하게 된다.
> Since pardon and forgiveness are offered throug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in order that the sinner, freed from the tryanny of Satan, the yoke of sin, and the miserable bondage of vices, may cross over into the Kingdom of God, surely no one can embrace the grace of the gospel without betaking himself from the errors of his past life into the right way, and applying his whole effort to the practice of repentance.

칼빈에 있어서 그 中心眞理의 內容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것으로 되어주시어 "그와 한 몸이 되는 일"(we grow into one body with him)(*Inst.* III, 1:1; 2:24) 입니다. 둘째로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모든 것이 우리 것으로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두 단계라 함은 논지적 단계를 말하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터 받는 것을 말할 때 고전 1:30 "지혜" "의" "거룩" "구속"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 28:16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우리 것이 되는 엄청난 일이나 엡 2:6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일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유익"(fructus 또는 bona)들입니다. 그러나 「救援論」에 관계된 部分은 고전 1:30의 네 가지 중 둘째의 세째 "의"와 "거룩함" 즉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 두 가지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받지 않을 수 없음을 도처에서 강조합니다(Ⅲ, 2:8; 11:6, 10, 23; 15:5, 6; 16:1, 2).

칼빈은 그의 信仰論(『강요』Ⅲ, 2:8, 24)에서 벌써 이점을 分明히 하고 있습니다.

>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요 6:29 참조)-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죄의 용서와 화평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지셨을 뿐 아니라 성결을 위해서(고전 1:30 참조), 그리고 생명수의 원천으로서(요 7:38, 4:14 참조) 보내지셨으므로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좀더 평이한 표현을 한다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초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을 경건한 성품과 분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 Since faith embraces Christ, as offered to us by the Father(Jn 6:29)-that is, since he is offered not only for righteousness, forgiveness of sins, and peace, but also for sanctification(I Cor. 1:30) and the fountain of the water of life(John 7:38; 4:14)-without a doubt, no one can duly know him without at the same time apprehending the sanctification of the Spirit. Or, if anyone desires some plainer statement, faith rests upon the knowledge of Christ. And Christ cannot be known apart from the sanctification of his Spirit. It follows that faith can in no wise be separated from a devout disposition.

여기서 注目해야 할 것은 "信仰"이 "경건한 성품"(a devout disposition, pius affectus; passion, emotion)과 分離되지 않는다는 点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變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善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칼빈은 善行없는 信仰을 꿈꾸어 본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성립하는 칭의를 꿈꾸지 않는다.
> We dream neither of a faith devoid of good works nor of a justification that stands without them.(*Inst.* Ⅲ, 16:1)

그리하여 칼빈은 성경은 언제나 "신앙"과 "사랑"을 짝을 이루어 말함을 도처에서 지적합니다. 우리는 Moravian-Wesleyan의 사람에게 道德的 變化를 일으키는 "산 信仰"(a living faith)의 종교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님을 Calvin의 글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독교의 中心眞理에 대한 神學共觀의 칼빈神學的 根據

이상으로 우리는 基督敎 宗敎의 中心眞理를 칼빈의 神學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神學共觀"의 일은 칼빈神學의 어디에 根據를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神學者도 다 자기가 主張하는 "眞理"는 보편적인 것 아니 神學의 모든 分野를 향하여 그 眞理를 "共觀"하여 보라고

主張할 것입니다. 칼빈의 경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처음부터 "自己의 神學"을 내세워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내 神學을 배우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칼빈은 『강요』 59년판 서두에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독교 강요』를 내는 目的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본서에서 내가 목적한 것은 신학(神學)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하며 아무 어려움 없이 그 말씀 안에서 진보를 보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기독교종교의 모든 부분을 총괄, 개진하였고 또 그것을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하였으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기만 하면 성경 속에서 무엇을 특별히 찾아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을 어떤 목적에 연관시켜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Moreover, it has been my purpose in this labor to prepare and instruct candidates in sacred theology for the reading of the divine Word, in order that they may be able both to have easy access to it and to advance in it without stumbling. For I believer I have so embraced the sum of religion in all its parts, and have arranged it in such an order, that if anyone rightly grasps it, it will not be difficult for him to determine what he ought especially to seek in Scripture, and to what end he ought to relate its contents.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 첫째로, 위에서 말한대로 칼빈이 『강요』를 쓰는 목적이 「自己神學」을 선전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聖經」을 알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点입니다. 사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는 『강요』가 교과과정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聖經」이 目的이지 『강요』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둘째로, 그러나 여기서 사실상 『강요』는 보통책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즉 칼빈은 『강요』를 「聖經」 이해를 위한 「解釋學的 原理」(hermenentical principle)로서 役割을 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칼빈은 같은 편지에서 이 点도 또한 分明히 하고 있습니다.

> 만일 필수적인 도구로서 본서가 주는 지식을 갖추기만 하면, 경건한 독자들이 성경을 대하는데 있어서 많은 난관과 지리함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 he approach scripture armed with a knowledge of the present work, as necessary tool.

즉 이 책이 聖經을 읽는데 "necessary tool" "필수적인 道具"로 쓰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 칼빈은 여기서 두 가지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는데 쉽게 접근(easy access)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 속에서 주로 무엇을 찾고(what he ought principally seek in scripture) 또 그것을 무슨 목적에 적용해야 하는가(to what end he ought to relate its contents)하도록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目的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神學이 이와 같은 原理들을 존중하였더라면 基督敎의 오늘의 혼란과 敎會의 오늘의 慘狀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로, 『강요』는 聖經을 읽는 사람에게 참으로 "easy access"(쉽게 접근 할 수 있는 知的 道具)를 제공하여 줍니다. "창조자"되시고, "구속자"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느 한 절에서도 놓쳐서는 아니될 主體이십니다. 이사야 43:1, 2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

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와 같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구속자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잘 나타내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主體되심에서 추호라도 이탈되는 순간 그 성경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강요』의 제 1권 제 2권은 聖經 전체를 통한 「해석학적 원리」로서 우리가 성경을 쉽게 또 은혜롭게 읽을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강요』 제 3권과 제 4권 역시 「聖經」이해에 결정적 도움을 줍니다. 「성경」이 目的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성경이 벌써 분명히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매 구절에서 또는 성경의 매 部分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 그 모든 有益을 누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定罪가운데서 罪와 悲慘과 滅亡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교회들"에 맞부딪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믿는 자에게 "큰 은혜"가 되며 동시에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심각하게 悔改해야 하고 또 큰 恩惠의 확신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해석학적 원리"로서 『강요』 제 4권의 위치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혁교 교회론의 제일 원리는 창세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는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사역"을 아니주시어 人生이 滅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매 구절이 敎會의 말씀 使役의 말씀이고 또 성경은 언제나 당신의 도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일으켜 오십니다. 아브라함 족장교회에 있어서의 아브라함 목사의 목회사역, 이스라엘 광야교회에 있어서의 모세 목사의 목회

사역을 위시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목사의 말씀사역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먹여 오시었고 "성도를 완전케 하시는 일"을 계속하여 오시었고 끝 날까지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칼빈은 『강요』에서 "聖經 속에서 무엇을 주로 찾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무슨 목적에 관계시켜야 하는가"를 分明히 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우리는 「聖經」속에서 主로 "福音의 말씀"을 찾아야 하고 그 "구원의 도리"를 "영혼 구원에 관련시켜야 한다"고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해서 칼빈의 神學은 "宣敎神學" "牧會神學"임을 明確히 알 수 있습니다. 「聖經」의 말씀 속에서 "福音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罪人을 구원하는 目的에 적용하는 일이 "牧會"요 "宣敎"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神學" "聖經" "敎會使役"이 三者를 한 體系로 科學的으로 統全(integrate)하는 神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칼빈과 같이 아름답게 통전하는 神學을 사실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부언코져하는 것은 칼빈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福音"의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聖經속에 "福音"의 말씀보다 審判과 定罪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칼빈은 아담에게 하신 "네가 정녕 죽으리라"(창 2:17)의 말씀은 우리의 信仰을 세우기보다 흔드는 말씀임을 지적합니다(*Inst.* Ⅲ, 2:7). 그러나 "信仰의 임무는 하나님의 진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진리에 署名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신앙"을 세워주는 말씀을 성경 속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聖經의 모든 말씀이 "福音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칼빈 神學이 제시하는 解釋學的 原理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까? 聖經의

모든 말씀 배후에 創造者되시고 救援者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당되는 말씀 배후에 있는 敎會의 말씀사역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使役을 일으키시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人間의 완고함과 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되는 震怒와 警戒의 말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福音信仰으로 救援얻는" 基督敎 宗敎의 中心眞理를 中心으로 하여 모든 聖經을 解釋하자는 解釋學的 原理가 무너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논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綱要』와 「聖經」의 관계는 垂直과 水平의 관계 또는 意味와 歷史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綱要』는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사역을 통한 죄인 구원의 內容이 立體的으로 서술되어 있고 「聖經」은 『綱要』에 등장하는 實在(res ipsa)들에 관한 歷史的 敍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綱要』는 聖經의 歷史의 每時点에 있어서의 意味를 分明히 하여 주는 "解釋學的 原理"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聖經은 舊約과 新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同一線上에 놓고 하나의 解釋學的 原理를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舊約과 新約을 同一線上에 놓고 理解하는 敎會의 傳統은 이미 確固히 되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中心에 놓고 舊約을 待望의 次元에서 新約을 記念의 次元에서 같은 "福音"의 같은 救援의 效果를 얻는데 있어서 本質的 一致를 보는 것이 敎會의 立場입니다. 고린도전서 10:1~4에서 사도바울은 舊約敎會가 모세목사의 使役으로 同一한 洗禮와 聖餐에 참여하였다는 가르침은 舊約敎會와 新約敎會의 本質的 一致를 주장하는 하나의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舊約과 新約을 同一線上에 놓고 칼빈의 解釋學的 原理를 適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일 同一한 基督敎 宗敎의 中心 眞理가 舊約과 新約의 每 時點에 있어서 歷史的 事件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原理가 敎會史에 있어서도 役事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舊約과 新約의 各 時點에서 主體로서 서 계시던 同一하신 創造者되시고 救援者되시는 하나님께서 敎會史의 各 時點에서도 敎會의 말씀 使役을 통해서 罪人 구원의 役事를 계속하여 오고 계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敎會史에서 宣布되는 말씀들이 規範이 되는 말씀은 아니고 오히려 規範이 되는 聖經 말씀을 새롭게 宣布함으로써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시 그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罪人 救援의 役事를 이룩하여 오십니다. 그러므로 同一한 解釋學的 原理로서 敎會史의 各 時點에 各 人物들과 事件들을 解釋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西洋에 발달하여 온 敎會史學이 전연 그 學問的 立場을 달리하여 敎會의 歷史를 보니 信仰은 처음부터 탈락되고 하나님의 救援史로 보기보다는 一般世界史와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變質되고 말았습니다. 敎會史에 등장하는 人物들을 "信者"로서 그 人物의 "信仰"을 다루기 보다 "不信者"와 아무 차이가 없는 "個人利害關係"나 "權力 싸움"의 主人公으로 삼고 있으니 대개의 경우 敎會史가 "싸움 구경"을 시키는 歷史로서 전락하고 맙니다. 敎會史 學者는 그러므로 "敎會史 方法論"부터 재검토해서 "바른 方法論"에 의한 바른 敎會史가 다시 서술되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敎會史의 모든 時點의 人物과 事件에 있어서 基督敎의 中心 眞理를 中心으로 다시 서술할 必要가 있습니다.

宣敎現場에서 우리는 舊約과 新約과 敎會史에서 主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獨生子의 寶血의 恩惠를 전파하는 敎會의 福音使役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信者들의 "죄사함"받고 "悔改하여 重生하는" 靈魂들의 讚頌의 事件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宣敎에 熱心하는 敎會들은 罪人들로 꽉차있는 宣敎地의 무르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일군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宣敎하는 敎會의 참모습이요, 오늘 온 世界가 一日生活圈으로 축소된 地球村 시대에서는 이미 파송한 宣敎師들을 매개로 全敎人의 宣敎地 國民 全體를 향한 福音證據의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1천 5백만 신도는 전세계 50억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그 한사람 한사람에게 救主예수를 전파할 때가 왔습니다.

III. 全世界 神學界를 向한 神學宣敎와 信仰運動의 必要性

基督敎 宗敎의 中心 眞理에 대한 神學共觀을 우리는 全世界 神學界를 向하여 提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全世界 神學界가 온 世界를 주고도 살 수 없는 福音眞理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神學들이 이 中心眞理: 하나님께서 우리를 向하여 긍휼을 배푸신다는 이 엄청난 恩惠의 眞理를 다시 한번 確認할 것을 促求하는 일입니다. 西洋神學이 Kant 이래로 信仰에서 떠난 결과 오늘날 예수께서 말씀하신대로 "人子가 올 때에 世上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하신 그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第一次的 책임이 "神學의 背道"에 있음은 明確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第一次的 使命은 世界神學을 향하여 "福音"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Calvin 神學에서 그 根據를 찾았고 물론 그것은 敎會의 가르침과 바울-어거스틴-루터-칼빈-웨슬레이의 가르침에서 그 內容과 必要性을 確認하였습니다.

사실 그 內容은 아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世界神學界가 너무 이 中心 眞理에서 離脫된데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옛 眞理를 심각하게 믿지 않는 풍조가 敎會안에까지 미쳐온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處地에 있어서 神學宣敎와 竝行하는 "信仰運動"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罪赦함"의 福音과 悔改와 重生의 必要性을 모르는 神學者가 어디 있습니까? 基督敎人이면 그와 같은 知識은 初步的인 知識입니다. 問題는 오히려 "하나님께 罪赦함을 받은 일"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를 알고 그 놀라운 恩惠를 事實로 누리는 가에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罪赦함 받은 일"이 아무 感謝할 것도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背後에는 하나님 앞에 罪人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무 深刻한 문제가 아닌데 있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震怒와 審判"이 아무 두려운 것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해서든지 天國가야 하겠다는 熱望도 없고 地獄가서는 큰일 나겠으니 어째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代贖의 恩惠를 힘입어 "참고 선한 일에 힘쓰는 者"되어야 하겠다는 深刻한 心靈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줄고 主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새 심령이 되었는가가 문제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오늘의 敎會의 總體的 衰退의 原因은 分明히 "神學의 背道"에 起因합니다. 그러나 Kant 의 不信이 따지고 보면 Kant 個人의 것이 아닙니다. Kant는 결국 自己 時代의 不信을 代辯하고 있는 것이 불과합니다. 中世의 信仰的 "타락의 틈을 탄 humanism"

여기에 모든 原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다 "自己"를 더 믿는 Descartes의 휴머니즘에 문제가 있습니다(Discours de la methode, 1637). 이 不信의 시작이 150년 후에 Kant 때에는 당시의 知性에 속 깊이 뿌리 박히기 시작했고(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 다시 100년 후에 Harnack때는 이미 不信이 상식화 되게 되었고(Das Wesen des Chrictentums, 1900) 다시 100년이 지난 오늘에 "믿음을 찾는 일"이 어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 "神學"을 탓할 것이 아니고 "믿음을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ACTS 교수진과 合同神學院 教授陣이 이 일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神學共觀"의 일을 온 世界神學界를 向하여 傳播하는 동시에 그 中心眞理가 바로 우리 自身에게 共同으로 이루어지는 信仰운동을 힘차게 展開하여 나가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칼빈신학의 구조와 신학의 중심 진리:

- 한철하 박사의 "칼빈신학과 신학공관"에 대한 논평 -

김 재 성
<조직신학 · 조교수>

먼저 칼빈사상연구소 제 1회 강좌에 오셔서 귀한 강연을 해 주신 한철하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일생을 통해서 한국 신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시고, 특히 칼빈의 신학을 강조하여 후학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논평자는 여러 차례, 세계 칼빈 학회에 나가서서 많은 학자들과 열심히 토론하시는 한 박사님의 높은 학문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개인적으로 매우 큰 도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1998년 세계 제 7차 칼빈 학술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논평은 그 날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로 한 박사님의 발표 후에 질의하지 못한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칼빈신학